

1920-30년대 모던 걸의 복식 디자인의 변화가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

Social Effects of the Changes in Modern Girl Fashion Design during 1920s-30s in Korean

김지유 Kim Zyoo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섬유미술·패션디자인과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전공 (복수전공)
BFA Program, Fine Arts Textile Art-Fashion
Design, Visual Communication Design, Hongik
University (Double Major)

- 서론
- 모던 걸의 등장과 복식 디자인의 변화
 - 모던 걸의 등장
 - 한복의 개량과 양장의 착용
- 모던 걸의 복식 디자인의 변화가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
 - 공적 영역으로의 진출
 - 성적 대상으로의 매개물
 - 여성해방 의지의 표현
- 결론

지도교수: 박지나
Supervisor: Park Jina

1. 서론

옛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즐기는 '뉴트로(Newtro)'¹⁾ 현상이 최근 몇 년간 인기이다. 그중에서도 이른바 '개화기 복장'으로 불리는 모던 걸, 모던 보이의 유행에 대한 대중의 수요가 높다.²⁾ 이는 과거의 아름다움과 현대적 스타일링이 조화되어, 고급스러운 빈티지 느낌을 선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모던 걸, 모던 보이의 유행은 서울의 익선동과 정동, 인천의 개항장 거리와 같이 근대 문화의 흔적이 남아 있는 장소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롯데월드와 같은 테마파크에서도 '개화기'를 주제로 봄 시즌 축제를 기획, 개화기 의상 대여점을 운영하며, 개화기 의상을 대여하여 입고 다니는 것이 하나의 놀이문화로 자리매김했다. [그림 1], [그림 2]

모던 걸, 모던 보이의 유행은 이렇게 현대 젊은이들에게 개성적인 스타일링과 입고 다니며 사진을 찍어 올리는 등의 놀이문화 트렌드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렇다면 이 유행이 처음 등장한

- 1) 뉴트로(Newtro)는 새것을 뜻하는 '뉴(New)'와 복고를 뜻하는 '레트로(Retro)'의 합성어
- 2) #개화기의상 해시태그는 2024년 6월 기준으로 4.4만 개이다.



[그림 1] 개화기 의상 대여점 '경성의복'(출처: 경성의복 홈페이지)

당시에는 복식 디자인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이 연구의 목적은 1920-30년대 '모던 걸' 복식 디자인의 형태적 측면과 사회적 의미를 분석해서 모던 걸의 복식 디자인의 변화가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다. 연구 방법은 문헌과 신문 잡지 등 당시의 매체에 나타난 사료의 표상 분석 방법이다. 선행연구로는 「20세기 한국의 신여성과 모던 걸 패션의 비교 연구」(이상례·소황옥, 2019), 「1920년대 시대정신을 통해 본 여성패션의 변화」(배수정, 2007), 「근대적 표상으로서의 여성패션 연구」(김은정, 2004) 등이 있다. 연구의 시대적 범위는 양장과 개량한복으로 모던 걸 복식의 변화가 뚜렷했던 경성의 1920-30년대이다.

Introduction

The 'Newtro' phenomenon has become popular in recent years, where people enjoy old things in a new way. There is a growing demand for modern girl and boy attire, known as 'enlightenment attire'. This style blends past beauty with modern elements, creating a luxurious vintage feel. You can commonly see modern girl and boy attire in places where traces of modern culture



[그림 2] 롯데월드 어드벤처 봄 시즌 축제 '개화기' 관련 이미지(출처: 환경일보)

remain, such as Ikseondong and Jeongdong in Seoul and Open Port Street in Incheon. Theme parks like Lotte World organize spring festivals with the theme of the 'Enlightenment Period' and even operate Enlightenment Costume Rental Stores.

Renting and wearing Enlightenment Costumes has become a form of entertainment culture. The attire of modern girls and boys has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unique styling and playful cultural trends of modern young people, such as wearing them and taking picture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mpact of changes in modern girl clothing design on Korean society by examining the morphological aspects and social meaning of the 'Modern Girl' clothing design in the 1920s and 1930s. The research will include a literature review and analysis of the representations of historical materials in the media of the time, such as newspapers and magazines. Previous research includes "Comparative study of new women and modern girl fashion in 20th century Korea" (Lee Sangrye and So Hwangok, 2019), "Changes in women's fashion seen through the zeitgeist of the 1920s" (Bae Sujeong, 2007), and "Women as a modern symbol: Fashion Research" (Kim Eunjeong, 2004). The historical scope is the 1920s and 1930s in Gyeongseong when changes in modern girl clothing were apparent due to the influence of Western clothes and improved hanbok.

2. 모던 걸의 등장과 복식 디자인의 변화

2.1. 모던 걸의 등장

1920-1930년대는 전 세계적으로 여성들의 의식 변화와 사회 참여가 두드러졌던 시기였다. 이 시기의 여성들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근대적 가치에 기반한 의식세계를 갖고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 사회로 진출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신교육을 받아 가부장제적 도덕규범에 도전하여 가정에서의 해방을 주장했으며, 서양식의 복장과 두발을 추구하는 등 전통적인 여성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즉, 새로운 감각적인 멋과 지식을 추구하며 주체성을 찾아나갔다. 한국의 '모던 걸'들 또한 경성의 소비문화 형성과 함께 등장한 개혁적 성향을 보여주는 새로운 서구적 스타일과 의식의 신식 여성들로서, 당시의 새로운 패션 아이콘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주로 10대 말에서 20대 초중반의 부르주아 출신 여학생, 예술가, 대중문화 종사자인 배우, 가수, 카페 종업원, 백화점 직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2.2. 한복의 개량과 양장의 착용

서양 선교사들이 조선 여성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1900년대 말부터 서양 복식이 등장했다. 특히 1920-30년대는 양장의 착용과 한복의 개량이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모던 걸의 복식의 변화가 뚜렷해진다.

먼저, 모던 걸들은 기존의 불편한 한복을 개량하여 입기 시작했다. 한복 개량은 1900년대 말부터 서양 선교사들 중심으로 시작되었는데, 이들은 가슴이 드러나는 짧은 저고리를 개량하여 허리까지 길게 하였고, 가슴을 동여매는 치맛말기 대신 양복의 간편함을 본떠 만든 어깨허리 치마를 여학생들에게 착용하게 하여 가슴의 압박감을 덜 하게 만들었다. [그림 3] 1920년대에 들어 '한복 개량 운동'³⁾은 더욱 활발하게

논의되며 개량한복은 더 큰 발전을 갖게 되었다. 치마의 길이는 발목 길이 혹은 무릎길이까지 짧아졌으며, 치마폭은 통으로 만들어 입는 방식으로 변했다. 또한 복잡한 전통적 여성 속옷 대신에 '사루마다(猿股, sarumata)⁴⁾'라고 하는 무명으로 만든 반바지 형태의 일본식 속옷과 어깨허리가 달린 속치마를 착용했다. [그림 4] 이 외에도 여성의 장옷 폐지, 옷고름 대신 단추를 달고 주머니를 만드는 등의 다양한 개량 작업 또한 진행되었다.⁵⁾

또 다른 방향의 복식 변화는 양장의 착용이며, [그림 5]의 신문기사에서처럼 매우 크게 유행했다. 1920-30년대 모던 걸의 패션은 대부분 양복과 연결되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테일러드 재킷, 치마저고리에 입은 외투 코트, 직선적인 튜닉 블라우스, 짧은 반소매의 원피스 등의 양장이 주류를 이루었다. 스커트의 형태도 점퍼스커트, 세미 타이트스커트, 플레어스커트, A-라인 스커트 등 다양했다. 특히 스커트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양말이 함께 유행했다. 패션 소품으로는 모자, 구두, 숄, 핸드백 등이 적극 활용되었으며, 특히 값비싼 장신구를 활용하여 개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다. [그림 6]

헤어스타일은 단발과 파마로 크게 변화했다. 이에 따라 [그림 7]의 기사에서처럼 헤어 액세서리로서 모자도

- 3) 한복 개량 운동은 '여성복 개량 운동'이라고도 하며, 당시 선교사들이 입고 온 양장과 해외에서 귀국한 여성들의 옷차림은 당시 여성들에게 큰 자극이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여성 단체와 언론에서는 한복의 비활동성을 지적하고 장옷의 폐지와 함께 한복의 개량을 주장했다.
- 4) 사루마다는 일본의 남성용 속바지. 허리에서 허벅지까지 덮는 속옷이다.
- 5) 배수정, (2007), 『1920년대 시대정신을 통해 본 여성패션의 변화: 미국의 플래퍼와 한국의 모던 걸 비교를 중심으로』, 『생활과학연구』 제 27집, 전남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p.8



[그림 3] 개량한복, '사진으로 보는 근대풍경' 전시에서 신여성 차림의 여학생 사진 (출처: 부산근현대역사관)



[그림 4] 사루마다 (출처: 국립민속박물관)

크게 유행하였는데, 초기에는 챙이 좁고 머리를 감싸는 형태의 클로쉐(Cloche)가 유행이었다. [그림 8] 후기에는 챙이 넓은 카플린 스타일(Capeline Style)이 유행이었는데, 머리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형태로 머리 위에 살짝 올라오는 느낌을 주는 디자인이다. 이는 머리 뒷부분에 더 많은 볼륨을 주어 머리의 형태를 부각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림 9]

1920년대에는 구두의 굽이 대부분 실용성을 강조하는 미들 힐(Middle Heel) 이하의 로우 힐(Low Heel)이었으며, 문양이나 장식이 거의 없는 단순한 디자인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1920년 이후에는 다양한 종류의 구두가 등장했다. 특히 옥스퍼드 슈즈(Oxford Shoes)는 끈으로 매는 장화와 단화로서 인기를 끌었다. [그림 10] 이 외에도 콤비(Combination Shoes), 고무신, 운동화 등이 등장하면서 다양한 선택지가 제공되었다. [그림 11] 이들은 조선·동아의 지면 광고를 통해 홍보되었고, 이를 통해 인기를 독점하게 되었다. 또한 각 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검은색 운동화와 구두를 지정해서 신었는데, 구두의 발등에 꽃무늬의 수를 놓거나 끈 장식을 다는 등 보다 우아한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다.

양산 또한 당시에 유행이었는데, 여학생들 사이에서 특히 높은 인기를 끌었다. 이는 쓰개치마와 장옷의 대체품으로 사용되었으며, 기생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하여 널리 유행이 퍼지게 되었다. 모던 걸들은 양산을 입을 때 필수품처럼 양산을 착용했으며, 또한 항상 손에는 장갑을 끼었다.

1920-30년대는 본격적인 근대화로 들어서는 시기로 '시간'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형성되었고, 이에 따라 시계가 또 하나의 장신구로 인식되어 각광받았다. 당시에는 외국에서 수입된 시계가 값비싼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필수품으로 여겨졌다. 또한, 시계 외에도 반지와 보석 반지,



[그림 5] 양장의 유행, 《중앙일보》, 1934.8.22.



[그림 6] <첫봄의 아라모드; 핸드백>, 《동아일보》, 1934.2.6.



[그림 7] <모던걸의 장래 머리장식은>, 《중앙일보》, 1932.3.6.



[그림 8] 클로쉐(출처: 위키피디아)



[그림 9] 카플린, <「파리」에서 유행하는 최신식 부인 모자(寫)>, 《동아일보》, 1935.3.27.

금테 안경, 금니, 여우털 목도리 등과 같은 사치품들도 인기를 끌었다. [그림 12], [그림 13]

또한 곱게 염색된 털실의 수입이 시작되면서 여성들은 방한용으로 거추장스러운 두루마기 대신 털실로 뜨개질된 솔을 선호하기 시작했다. 털실 솔은 크고 두툼한 디자인이 인기를 끌었으며, 특히 자족빛의 컬러가 많이 선택되었다. 여성들은 솔뿐만 아니라 스카프 또한 어깨에 걸치거나 베일처럼 머리에 착용했는데, 스카프는 솔과 달리 주로 장식용으로 얇은 옷감으로 제작되었다.

이처럼 이 시기는 의복의 형태와 소품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색채도 다양해졌으며, 소재도 무명이나 삼베와 같은 서민적 옷감이 아닌 비단과 명주로 옷을 제작하여 보다 고급스러운 모습을 선보이게 되었다. 특히 여름에는 속이 비치는 옷감을 사용하여 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기도 했다.⁶⁾

3. 모던 걸의 복식 디자인의 변화가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

3.1. 여성의 공적 영역으로의 진출
 물론 식민지이고 경성에 국한되긴 하였지만, 1920-30년대는 서구 사상과 자본주의의 유입으로 대중문화와 신문, 잡지와 같은 매체가 발달했으며, 이로 인해 시각적으로 볼거리가 폭발하는 도시문화의 형성기였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모던 걸의 복식 디자인에 변화를 가져 왔으며, 소비문화를 가속화하고 패션의 유행을 불러오게 했다. 공간적으로도 백화점, 카페, 극장 등의 대중문화를 누릴 수 있는 공간에서 보이는 모던 걸의 라이프 스타일이 주목받게 된다. 이때 가장

6) 이상례·소황옥, 「20세기 한국의 신여성과 모던 걸 패션의 비교 연구」, 『복식』 제69권 제5호(통권 제220호), (한국복식학회, 2019), pp.8-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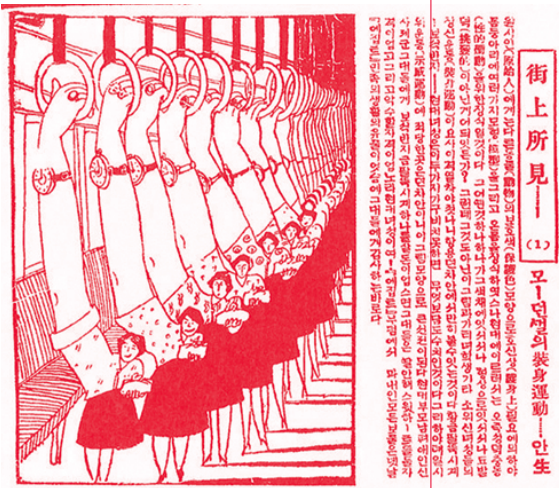
[그림 10] 옥스퍼드 슈, 《동아일보》, 1921.5.4.



[그림 11] 콧, 《동아일보》, 1926.5.23.

시각적으로 드러났던 것은 모던 걸의 '복식 디자인'이다. 모던 걸은 한복 개량과 양장 착용을 통해서 새로운 근대적 라이프스타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를 통해서 여성도 공적 영역으로 진출할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형성되었고, 각각의 직업과 역할에 맞는 복식의 형태가 사회적으로 요구되었다. 모던 걸들에게 기존의 짧은 저고리와 긴 치마의 전통적 의복은 사회활동에 불편했기 때문에, 편리하게 변화된 복식 디자인을 통해 전문직 및 사무직 분야에서도 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14]

이처럼 근대화된 한복과 속옷, 양장과 단발, 편리성과 경제성, 상징성과 심미성까지 고려된 당시의 복식 디자인의 변화를 통해서, 여성도 여러 기관이나 단체에서 공적 활동과 직업 활동을 하며 넓은 폭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며, 가부장적 가족관계에서 나아가 민족, 계급, 남녀평등에 대한 의식을 가질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복식 형태의 변화만이 아니라, 여성들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를 재정의하는 인식 변화의 과정을 반영하는 것이었으며, 변화된 복식 디자인은 시각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림 12] 시계, '모-던 걸의 장신운동(藏身運動)'
《조선일보》, 1928.2.2.



[그림 13] 술, 《동아일보》, 1924.3.8.

3.2. 성적 대상으로의 매개물

이 시기의 여성은 개혁과 해방의 상징으로 의복을 개량하고 서구화된 외모를 지향했다. 그러나 변화된 모던 걸의 복식 디자인은 긍정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도 나타났다. 이 시기 유입된 서구적인 문화는 전통 사회에서 억압되었던 육체에 대한 관심을 자극하며 새로운 성적 상상력과 욕망을 일으켰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남성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그들은 여성들의 노출이 늘어난 패션을 비판하면서도 동시에 욕망을 일으키는 매개물로 바라보았다.⁷⁾

1934년 《조선일보》의 ‘꽃보다 다리 구경’이라는 도상을 보면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남성의 시각을 풍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남성의 시선이 여성의 종아리와 구두에만 시선을 쏟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5]

이처럼 구두의 경우에는 드러난 종아리와 맵시 있는 구두의 굽 등이 새로운 성적 매력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즉, 모던 걸의 패션은 여성의 의식뿐만 아니라 남성의 의식에도 변화를 낳은 것이다.

3.3. 여성해방 의지의 표현

모던 걸은 양장을 입고 서구식의 외모를 추구하며 기존의 유교적 도덕관과 가부장제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다. 특히 감추는 디자인을 억압적으로 여기고, 드러내는 디자인을 해방된 것, 자유로운 것으로 간주했는데, 이전의 버선을 신고 치마로 발등을 가리던 모습에서 벗어나 무릎까지 오는 짧은 치마, 나아가 속살이 비치는 옷감을 입는 모습에서 그들의 해방 의지를 엿볼 수 있다.

2.2의 [그림 3] ‘사진으로 보는 근대풍경’ 전시에서 보여준 신여성

7) 김은정, 「근대적 표상으로서의 여성패션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2004년 제43집 제2호,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04), pp.349-351, pp.352-353, pp.341-344



[그림 14] 다양해진 여성직업, 여성(19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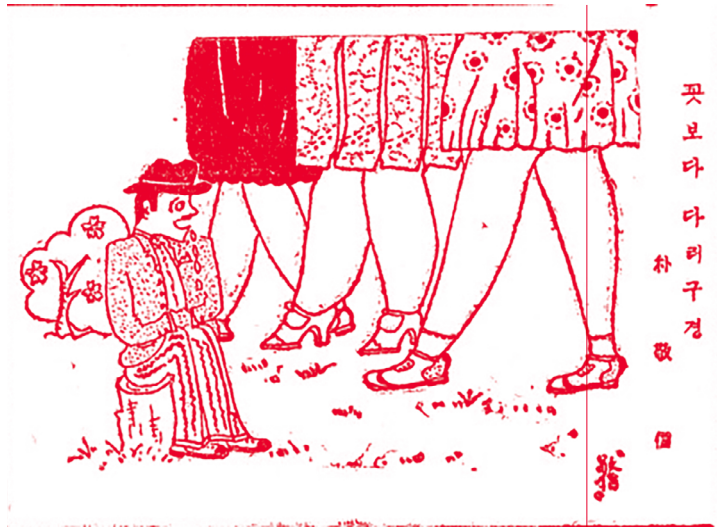
차림의 여학생 사진의 개량한복을 보면 불편한 의복으로 인해 생기는 신체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모습이 돋보인다. 상의는 길게, 소매통은 좁게, 치마 길이는 짧게 변화된 한복을 입었으며, 가슴을 조이던 치맛말기를 벗어 편한 활동을 했다. 이처럼 모던 걸의 복식 디자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패션이 단순히 스타일뿐만이 아니라 자유로움과 해방 의지를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자 모던 걸의 태도였다는 점이다.

4. 결론

매체의 표상들을 통해 살펴본 1920-30년대 경성의 모던 걸들의 복식 디자인은 당시 한국 사회에 다양한 영향들을 미쳤으며, 심지어 오늘날의 뉴트로 트렌드에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1920-30년대에 나타난 한국의 모던 걸 복식 디자인을 분석하고, 변화된 복식 디자인이 한국 사회에 미친 사회적 영향과의 관계성을 밝히고자 했다. 모던 걸들은 새로운 감각적인 멋과 지식을 추구하며 주체성을 찾아나갔다. 그들은 기존의 한복을 개량하여 입기도 했는데, 이러한 개량한복은 치마의 길이와 폭, 속옷 형태 등에서 변화가 있었다. 이는 한복의 편의성과 실용성을 높여주었으며, 새로운 스타일링에 영감을 주었다. 또한, 이 시기 모던 걸들의 패션은 주로 양복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들은 양장과 함께 다양한 소품을 활용하고, 헤어스타일과 구두, 시계, 양산 등을 통해 개성을 나타냈다.

1920-30년대 모던 걸에게 복식 디자인의 의미는 전통적인 규범을 뛰어넘는 자유로움과 개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했으며, 양장과 한복의 개량은 여성들이 공적 영역으로 더욱 진출할 수 있게 해 주었다. 또한 개항기 이후 서구적인 문화의 영향으로



[그림 15] <꽃보다 다리구경>, <조선일보>, 1934.5.3.

여성의 의식과 남성의 인식에도 변화가 일어났으며, 이러한 변화는 성적 정체성과 관련된 새로운 상상력과 욕망을 형성했다. 모던 걸의 패션 변화는 단순히 스타일의 변화를 넘어서 여성해방과 사회적 역할의 재정리, 그리고 남성의 성적 욕망에 대한 영향에까지 미쳤다. 또한 모던 걸의 패션은 단순히 스타일뿐만이 아니라 자유로움과 해방 의지를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는 1920-30년대 본격적인 근대화와 자본주의의 수용으로 형성된 소비문화 속, 모던 걸의 패션 스타일의 이론적 정리를 시도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는 근대 문물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모던 걸, 즉 신여성이 겪은 체험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던 걸의 복식 디자인 중에서도 의복의 '형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소재나 색채를 포함한 더 다양하고 깊이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해방기 여성 복식의 변화에 따른 사회, 문화적 영향에 대한 연구처럼, 1920-30년대 이외의 다양한 시기의 복식 디자인이 한국 디자인사 연구로도 확장되기를 기대해 본다. 46

참고문헌

- 이상례·소황옥, (2019), 「20세기 한국의 신여성과 모던 걸 패션의 비교 연구」, 『복식』 제69권 제5호(통권 제220호), 한국복식학회
- 박혜원·양정희, (2015), 「한국 모던 걸 패션의 미적특성과 스타일링 연구」, 『패션 비즈니스』 제19권 제5호,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
- 김은정, (2004), 「근대적 표상으로서의 여성패션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2004년 제43집 제2호,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 배수정, (2007), 「1920년대 시대정신을 통해 본 여성패션의 변화: 미국의 플래퍼와 한국의 모던 걸 비교를 중심으로」, 『생활과학연구』 제 27집, 전남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 경성의복 홈페이지, <https://kyungsungclothes.modoo.at/>
- 환경일보, <https://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2235>
- 위키피디아, https://en.wikipedia.org/wiki/Cloche_hat